

## 〈육염기〉와 〈취미삼선록〉 화소의 유사성과 그 의미\*

남혜경\*\*

### 〈차 례〉

1. 들어가며
2. 인물 설정의 유사성
3. 공간 설정의 유사성
4. 몽유 장면의 유사성
5. 나가며

### 〈국문초록〉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은 유사한 화소를 유사한 구절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두 작품은 각각 서달의 여섯 딸과 한무제의 다섯 딸 등 최상층 자매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을 각각 ‘태평성대의 양신’형 인물과 ‘난세의 충신’형 인물로 분류하였다. 〈육염기〉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삶을 각각 조명하면서 ‘여성의 공명’을 다루며, 〈취미삼선록〉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의견 대립을 통해 ‘결혼 제도’를 문제 삼는다. 공간적 측면에서, 〈육염기〉에서 광염은 ‘망향루’를 짓고 먼저 죽은 가족들의 그림을 걸어 친정 가족들을 추모하였다. 〈취미삼선록〉에서는 전생에 여성이었던 광무제가 ‘망운루’를 지어 어머니인 태후를 추모하였으며 여읍공주가 어머니인 광후의 그림을 걸고 광후를 그리워했다. 작품 말미의 몽유 장면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광염과 날야은 서왕모와 옥황상제가 연 연회에 초대되었다가 신선이 된 친정 가족들을 만났으며 꿈에서 깬 뒤 남편과 함께 몽유록을 기록했다. 위의 화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친정 가족에 대한 여성인물의 애착이 나타난다. 조선 후기에는 여러 명의 여성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여성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설들이 등장했다. 그중

\* 이 논문은 2023년 1월 12일 이화어문학회 겨울학술대회 학문후속세대 자유발표에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음.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에서 보이는 유사한 구절은, 조선 후기에 다수의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들 작품군 사이에 상호텍스트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은 여성의 입장에서 기존 텍스트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육염기〉는 정난지변을 여성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작품이며 〈취미삼선록〉을 포함한 〈옥환기봉〉 연작은 후한 시대 광후의 폐위 사건을 여성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일련의 사례는 조선 후기 소설의 여성 향유층이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여성의를 표현하고 전달한 양상을 보여 준다.

주제어 육염기, 취미삼선록, 옥환기봉, 유사성, 상호텍스트성

## 1. 들어가며

〈취미삼선록〉은 공주 세 자매가 ‘취미궁’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부모들의 무도함에 저항한다는 독특한 전개로 많은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우선 소인호<sup>1)</sup>는 학계에 〈취미삼선록〉을 가장 먼저 화두로 제시하며 〈취미삼선록〉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취미삼선록〉의 여성 문학으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밝혔다. 그는 논문 「〈취미궁성산록〉의 이본적 특성과 축양 양상<sup>2)</sup>」,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sup>3)</sup>」를 통해 〈취미삼선록〉에 대한 서지 정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구선정은 학위논문인 「〈취미삼선록 연구〉<sup>4)</sup>」를 통해 〈취미삼선록〉의 서지, 갈등양상, 표현, 의식 지향 등을 분석하며 그 작품세계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민

1) 소인호, 「〈                   〉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171~194쪽.

2) 소인호, 「〈취미궁성산록〉의 이본적 특성과 축양 양상」,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485~513쪽.

3) 소인호,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133~159쪽.

4)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주는 「〈취미삼선록( )〉 연구-곽후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sup>5)</sup>를 통해 〈취미삼선록〉에서 곽후를 바라보는 공주들의 시선이 교차함을 지적하며 〈취미삼선록〉에 여성담론이 풍부하게 전개된 것에 주목했다.

〈옥환기봉〉 연작으로서의 〈취미삼선록〉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이승복의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sup>6)</sup>과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sup>7)</sup>, 임치균의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sup>8)</sup>가 있다. 이들 논의는 〈취미삼선록〉이 〈옥환기봉〉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부마들에 대한 공주들의 반발의식을 다루며 〈옥환기봉〉에 대한 비판적 독서물의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했다. 구선정은 〈옥환기봉〉 연작 중에서도 〈취미삼선록〉과 결이 비슷한 〈도앵행〉에 주목했다.<sup>9)</sup> 〈도앵행〉 역시 〈취미삼선록〉처럼 공주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 〈도앵행〉에는 가부장제 가족의 결속을 강하게 하기 위해 허상뿐인 명분을 들며 며느리인 영평공주를 배척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선정은 두 작품에 나타나는 공주들의 타자의식을 고찰했다.

다음은 〈취미삼선록〉에 대한 소재적 접근이다. 전성운은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 〈현봉쌍의록〉·〈현몽쌍룡기〉·〈몽옥쌍

5) 이민주, 「〈취미삼선록( )〉 연구-곽후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9,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69~106쪽.

6)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159~191쪽.

7) 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83~322쪽.

8)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51~378쪽.

9) 구선정, 「공존과 이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고찰-〈도앵행〉과 〈취미삼선록〉에 등장하는 공주들의 시택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65~400쪽.

봉연록》·〈쌍천기봉〉·〈취미삼선록〉을 중심으로」<sup>10)</sup>에서, 〈취미삼선록〉에서는 천상계 화소를 통해 광무제의 입장과 광후의 입장이 서로 뒤바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해결되지 않는 작품 내적 현실<sup>11)</sup>을 한 순간의 꿈을 통해 상상적 세계에서나마 해결하려는 자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취미삼선록〉에 대한 소재적 연구는 공간 연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선정<sup>12)</sup>은 취미궁이 은퇴와 보신처로서의 공간을 한다고 분석했다. 한길연<sup>13)</sup>은 취미궁이 당시 여성들이 한시 등을 통해 상상 속에서 지향했던 선계 모습과 같으며, 이는 탈속적 자기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박은정<sup>14)</sup>은 취미궁을 안팎 공간의 권력을 재배치하고 인물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동적 공간으로 보았다. 박은정은 또 〈취미삼선록〉의 그림에 주목하며<sup>15)</sup> 이를 통해 문학치료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강은<sup>16)</sup>은 취미궁을 광후에 대한 사적 그리움이 공적 재평가로 승화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취미삼선록〉을 바라보는 선행 연구자들의 시각에 동의하며 다

10)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 〈현몽쌍의록〉·〈현몽쌍룡기〉·〈몽옥쌍봉연록〉·〈쌍천기봉〉·〈취미삼선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 한국고소설학회 1999, 67~101쪽.

11) 광무제가 광후를 내친 것

12) 구선정, 「『중남산( ) 취미궁( )』의 체험 양상과 그 의미-『구운몽』과 『취미삼선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 이화어문학회, 2007, 219~239쪽.

13) 한길연,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49~185쪽.

14)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 60, 한민족어문학회, 2012, 85~124쪽.

15)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그림의 기능과 의의」, 『어문학』 132, 한국어문학회, 2016, 77~109쪽.

16) 김강은, 「〈취미삼선록〉의 시공간 구조와 파생작으로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62, 한국고전문학회, 2022, 365~398쪽.

소 구체적인 차원에서 〈취미삼선록〉과 〈육염기〉를 비교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취미삼선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여성인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취미삼선록〉이 광무제의 다섯 딸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처럼, 〈육염기〉는 개국공신 서달의 여섯 딸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취미삼선록〉과 〈육염기〉에는 일치하는 구절이나 유사한 화소들이 다수 발견된다. 두 작품은 자매들을 부귀를 기준으로 ‘태평성대의 양신’과 ‘난세의 충신’형으로 대비하였으며 여성 인물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집을 그리워하거나 친정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그렸다. 이야기의 말미에는 여성인물이 꿈에 서왕모의 부름을 듣고 천상계의 잔치에 초대되어 친정 가족들을 만나고 남편과 함께 자매들의 사적을 기록하기도 한다. 〈육염기〉와 〈취미삼선록〉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지엽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작품의 미감 및 의의에 밀접히 관여하고 있다.<sup>17)</sup>

우선 논의를 위해 두 작품의 등장인물의 서사를 짧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육염기〉는 명나라 건국 때를 배경으로 하는 연의소설이며, 제목의 ‘육염’이란 서달의 여섯 딸을 의미한다. 〈육염기〉에서 서달은 가장 뛰어난 개국공신으로 묘사되는데, 이에 따라 그의 딸들도 재능이 뛰어나 황태자비가 되거나 왕비가 되는 등 최상층의 삶을 살아간다. 여섯 자매 중 언니 세 명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동생 세 명은 간난고초를 겪는다.<sup>18)</sup>

1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미삼선록〉은 〈육염기〉의 여러 이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소장 〈육염기〉와 화소 및 구절의 유사성이 높다. 서울대학교 소장 〈육염기〉는 2권 중 전반부 1권이 없는 낙질이기에 서울대본에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황명육염기〉를 인용했다.

18) 서사 경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석사논문인 남혜경, 「〈육염기〉에 나타난 여성의식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20.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연왕비.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연왕에게 이를 타개할 계책을 알려 주며 연왕을 황제로 만듦.
	제왕비.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한 제왕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목숨을 보전할 것을 당부하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후 제왕이 다시 왕위에 복권할 수 있도록 도움.
	안남왕비. 대장군 목영과 결혼해서 그와 함께 안남으로 감. 목영이 안남왕에 봉해짐에 따라 안남왕비가 되어 남편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삶. 궁궐에 망향투를 지어 가족들의 그림과 조각을 놓고 고향을 그리워함. 만년에는 요지연에 참석해서 신선이 된 가족들을 만나고 <육염기>를 만들어 자매들의 일생과 요지연에서의 잔치를 기록함.
	방효유의 처. 연왕이 건문제에게서 황위를 찬탈했을 때 방효유가 죽었는데, 그의 주검을 수습한 다음 자결함.
	경정의 처. 연왕이 건문제에게서 왕위를 찬탈했을 때 경정이 죽자 두 딸과 함께 자결함.
	건문제의 비. 연왕이 건문제에게서 왕위를 찬탈했을 때 건문제와 함께 탈출하여 신하 정제의 도움을 받고 탈출하고 비구니가 되어 심산궁곡을 유람하다 우화등선함.

<취미삼선록>은 한나라 광무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광무제는 곽후를 폐위하고 음후를 황비로 삼았는데, 곽후 소생 공주로는 무양공주, 관도공주, 여읍공주가 있고 음후 소생 공주로는 날양공주, 연양공주가 있다. <취미삼선록>의 ‘삼선’이란 곽후 소생의 세 공주를 의미하며 ‘취미’란 이 세 공주가 부마들을 피해 거처하는 취미궁을 의미한다. 곽후 소생 공주와 음후 소생 공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곽후의 딸. 광무제가 양송이 비독을 잘 둔다고 하여 무양공주와 그를 혼인시킴. 양송은 음흉무도한 성격이며 이미 허씨라는 부인이 있었음. 무양공주는 양송을 혐오하여 매우 반발했으며 나중에는 허씨와 화합하여 양송을 누워치게 함.
	곽후의 딸. 남편과 불화함.
	곽후의 딸. 부마와 불화하여 광무제에게 취미궁을 만들어 달라고 함. 취미궁에서 무양공주, 관도공주와 함께 생활하려고 하나 부마들과 날양공주, 연양공주가 들어 오려고 하여 이들과 갈등을 빚음. 취미궁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곽후의 화상을 그려 항상 그리워함. 이를 본 광무제가 폐위된 곽후를 복원시킴.
	음후의 딸. 부귀영화를 누리며 남편인 두부마와 화락함. 어느 날 꿈에 요지연에서 가족들이 신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남편과 함께 이를 기록함.
	음후의 딸. 부귀영화를 누리며 남편과 화락함.

## 2. 인물 설정의 유사성

두 작품에 등장하는 자매들의 설정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일엄, 명엄, 광엄	자엄, 기엄, 월엄
	태평시대의 양신에 비유됨 유한정정한 성격 영웅호걸이 명주를 섞겨 입공하고 현달하는 것을 즐겨 논함 화려하고 변화한 것을 선호함 남편과 화합 자손이 번성함 *일엄은 남편과 사주가 같음	난세의 충신에 비유됨 단호하고 세찬 성격 남성에게는 충이 중요하고 여성에게는 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검소하고 간략한 것을 선호함 남편과 화합 자손이 번성하지 않음
	날양, 연양	무양, 관도, 여음
	태평시대의 양신에 비유됨 유한정정한 성격 부귀 중에 살며 인간 낙사를 겸한 자 남편과 화합 자손이 비교적 번성하지 않음 둘째 부인 소생 *날양은 남편과 사주가 같음	난세의 충신에 비유됨 단호하고 세찬 성격 남편을 잘못 만나 인간 낙사가 없으며 부귀를 꿈속에 부친 자 남편과 불화 자손이 번성함 첫째 부인 소생

두 작품에서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이 유사한 대목을 뽑으면 다음과 같다.

서공(\*서달, 여섯 자매의 아버지) 왈 태평지세에 낭신과 난세에 통신 야 품격이다 니 서 디미 업 러니와 그러나 부덕은 유한덩덩이 웃듬이라  
 니 이 그 아 삼인을 리미러라.

육엄기 77 78쪽.

영일누 삼인은 의복을 화려히 며 단미 만히 드리고 풍뉴와 변화흔 기를

승상 니 시네 다 그러흔디라. 명월누 상하 다 담타 웃고 명월누 시녀  
 영일누 번잡다 니 왕부인 왈 각각 당체 이시니 서 디미 업 러니와 명월  
 누 복녹이 듯겁디 아니타 니 사 이 다 맛디 아니터라.

녹염곡 54쪽.

등이 혼 번 보더니 러 오 녀기 태평천 국모 되실 상이 계시니이다  
 서공은 말좌 월념을 이 가 여 오대 오 니 그 뉘노 승이 손을 일념을  
 가라쳐 왈 어지다 만민니 그 덕화 입으리로다 니 서공이 놀나더니 둘 명  
 념을 가라쳐 왈 일국 왕비 되어 부귀 극 러니와 십 년 후면 큰 이 이셔 오륙  
 년 곳기대 불관이라 셋 광념을 가라쳐 왈 명년이면 일국 왕후의 즐겁기 누  
 리시리이다 손이 서로 이어 복녹이 이 업고 업고 넷 다섯 명저리 천  
 의 맛 니 업 나 가히 앓갑도다 단명 고 선종치 못 리로다 월념을 가라쳐  
 왈 슬푸다 부귀 흐 물결을 조 러지고 몸은 도로의 유리 냐 기갈을  
 면치 못 리로다.

황명녹염곡 41쪽.

데 탄왈 평지세의 양신과 세의 충널 갖트녀 그 만난 다르고 다 각각  
당체녀니와 날량은 진춧 부귀지상이오 쇼치을 겸 나 원전지상이로되 녀읍은  
 청고결속 녀 비록 결 미 지극 마 고췌할 기상이라 비컨 남 되  
 든들 나량은 이눈·주공 될 람이오 녀읍은 이·숙데 되리니 고결청풍이 만  
 의 뉴전 치 못할도라 농천지도 며 인 디리 여 도덕을 천 의  
 야 장 을 건즈며 광화 세상의 덩혀 덕 으로 유명만세 기 나량이 당 리니  
 미삼션녹 65쪽.

두 작품은 모두 여러 명의 자매들을 ‘태평지세의 양신’과 ‘난세의 충신’으  
 로 나누었다. 이는 여성인물의 덕성을, 남성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신하’라  
 는 직업이 가진 특징을 통해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태평지세의  
 양신’형 인물들은 유한정정한 성격을, ‘난세의 충신’형 인물들은 세차고 맑



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작품은 특정한 구절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미래가 각각 어떻게 전개될 것일지 예언하는 구체적인 장면도 유사하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육염기〉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궤적을 가진 6명의 여성인물의 삶을 그려내었으며 〈취미삼선록〉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하며 토론하는 여성인물들의 시각을 그려내었다.<sup>19)</sup>

〈육염기〉에서는 작품 속에서 언니 그룹과 동생 그룹의 비중이 거의 1대 1을 이루고 있으며 대비되는 여성인물의 삶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섯 자매가 등장할 때부터 태몽을 통해 이들의 상반된 운명을 암시하는 구절도 삽입되었다. 반면에 〈취미삼선록〉에서는 여성인물들의 성격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으나, 무양, 관도, 여음의 언니 측 인물들이 작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위 구절은 〈육염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육염기〉의 일염과 월염의 경우 각각 ‘연왕비 → 황비’, ‘황태자비 → 황비 → 축출당함’의 길을 걷고 있어 ‘태평천하의 국모’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나 날양은 두 부마와 혼인했을 뿐 왕비나 황비가 된 적이 없다. ‘하늘의 도를 이용하고 땅의 이익에 의거하여 도덕을 천하에 행하여 창생을 건지며 광화가 온 세상에 덮여 덕과 은혜로 이름을 만세도록 날리는 것’은 작품의 실상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수식이다.

세흔 다 유화 야 삼동 눈이 다 녹      되 아 삼 인은 다 추상널  
 일    야   담   고   한아   니   성정이   도흔디라 어   낫다   리잇고  
녹염기 77쪽.

위국공 서달의 장녀 일념이 안   은 부용화 이   을 먹음어 도양의   친   두

19) 위 내용은 구선정의 「〈취미삼선록 연구〉와 이민주의 「〈취미삼선록( )〉 연구-곽후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눈은 혼 별이 배비 넷 여 옥 혼 살비치 경첩 고 표일 나  
 천하 절 이오 혼 총혜 미 과인 나 응이 무쌍 고 부친 비셔 녀어 보  
 아 아니 통 대 업셔 천문지리와 병셔을 익이 알며 흥동의 텃하 고틀을 초아  
 시니 단정히 안 실 적은 추상널일 갖고 혼 번 웃고 말 면 삼동 눈이 다 녹  
 니 셔공 시에 크게 일 라 일오대 이아 남 런들 반다시 내게 지나리  
 니 녀 된 줄 가석도다 더라.

황명녹념기 45쪽.

공주 각각 시네 셋식 별 녀 더리고 잇시니 시년이 각각 이십이 못 고  
 이 초요월안의 명모호지라 옥용화 절세기이 녀 은 눈과 고은 되 이  
 목의 뵈오니 구녀 좌우로 뵈시 부용화 조로를 쳐 조양의 닷도 꿩 닷  
 납절 화 만발 녀 향기를 듯 니 실노 경성경국지 이라 그 중 녀읍의  
 시녀 옥호빙심이 더욱 절묘쇄락 여 양성하 을 흑할 비치 잇시되 위인이 청  
 고정당 녀 웃고 말 면 동의 눈이 녹을 듯 단정이 안자시면 추상널  
 일 갖더라.

미삼선록 110 111쪽.

‘맛이 셋은 모두 유화하여 삼동 눈이 다 녹는 것 같으되 아우 세 명은  
 가을 서리나 매서운 햇빛 같아 냉담하고 한아하니 성정이 매우 다르다’는  
 구절은 <옥염기>에서 처음 언니 그룹과 동생 그룹을 비교하는 데 쓰였으  
 나, 같은 작품에서 다시 한 번 쓰였을 때는 만언니 일염 한 명의 성격과  
 외모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반면 <취미삼선록>에서 이 구절은 여읍공주의  
 시녀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태 마황휘 나호신 연왕 테와 동년 동월 동일 동시의 낮 더라 야 겨실  
 제 서 지복 야 덩 야 겨시더니 이에 니 러 동신 줄 더욱 고틀이 녀이사  
 십삼의 늑네 초아 성친 니

녹염기 2쪽.

녀읍이 쇼 왈 형은 두부마로 동년 동월 동시의 나 계시니 그 발원 미  
가지오 슈뉴불이 양정으로 타일 혼날 혼시의 가고져 시리니 우리 올라가  
양 보면 혀 거두쳐 다려갈가 놀 서로 붓돌고 습으리니

미삼선록 52쪽.

앞서 인물소개에서 제시했듯, 〈육염기〉에서 연왕이 간신들의 모해를 물리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막후에 있던 일염의 조언 때문이었다. 〈육염기〉의 제왕이 실각 후 자결을 결심했으나 끝내 왕위를 보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명염이 막후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처세술을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육염기〉에는 연왕과 일염의 사주가 같다는 내용이 2번 언급되었으며 일염과 명염은 각각 남편과 동년생이라는 내용이 한 번 언급되었다. 〈육염기〉의 작가가 이러한 설정을 강조한 이유는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대등함을 표현하고 실존 남성인물이 세운 업적을 여성인물의 업적과 동일시하려는 목적성 때문일 것이다.

〈취미삼선록〉에서 날양공주는 남편과 사주가 같은데, 날양공주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남편과 화락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육염기〉의 일염, 명염과 같다. 〈취미삼선록〉에서는 사주가 같다는 설정이 ‘천생연분’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여읍공주가 두 사람을 조롱하는 데에 쓰인다.

### 3. 공간 설정의 유사성

도운석월의 북녁홀 라며 슬프를 이긋디 못 야 후원의 혼 고루 세워 북  
향 야 일흠을 망향누리라 야 농희 수십 길이오 주옥을 며시며 라매 표묘  
야 신선의 누각 더라 곳 편 봄이며 넓 디 을과 근 밤이면 목왕으로  
더브러 이 누의 올라 잔 로 며 글도 지어 고향을 라고 슬혀 더라 오라디  
아나 위국공 부음이 니 니 광염이 전의 다시 보디 못 야 이에 니 물 더욱

설위 죽음을 전폐 고 휘 미 네에 넘은디라

녹염기 100 101쪽.

너을 어더 쇼일 너 위회 나 눈을 감으면 모친과 제 것 잇난 듯  
잠을 면 소녀 품 속의 잇 듯 며 로 삼시로 후계 문안 던 면 절노  
동녘홀 향 너 눈물이 쇼사 니 왕이 밧게 망궤 집을 지어 니 을 보  
고 안흐로 동녘 망운누을 지어 주거 이후로 누의 올나 후전을 향 너  
에 더니 홀년 황상 병환이 위 신 기별이 오 .

미삼선녹 133 134쪽.

후원의 혼 집을 세워 위국공 낭위상을 향나모로 사겨 상시 의복을 넘혀 안치  
고 두 형 휘조 증수의 상과 삼낭 염 기염 월염의 상을 그라 복을 넘혀  
좌우의 피섯게 니 완연히 넷날 미화향 위국공 집의셔 모든 형데 너른 당의  
되셔실 적 디라 이 매 더욱 설위 도석으로 가 분향 고 제 기  
극진이 야 수십 년이로 게으르디 아니 니 운남 신민이 그 효성을 일 라  
기특이 너기더라

녹염기 102 103쪽.

곽후의 화상을 그려 정년주벽의 걸고 (중략) 녀음이 읊읍히 슬허 미 로아  
침식을 폐 고 늦기를 마지아니 고 진본이 아인가 녀 슬허 더라.

미삼선녹 68 69쪽.

〈육염기〉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운남왕비가 된 광염은 집 한 채와 누각  
(망향루)을 짓고 그 안에 부모, 형제, 자매의 상을 만들어 가족들을 기린다.  
〈취미삼선록〉에서도 〈육염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과 그림을 만들어 가  
족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온다. 〈취미삼선록〉의 첫 번째 인용문은 광무  
제가 여자였던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전생에 가족을 그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누각(망운루)을 지었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여읍공

주가 취미궁 안에 어머니인 곽후의 그림을 놓고 폐위된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 소설에서 그림이 종종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성인물이 자신의 친정가족을 그리워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두 작품은 ‘집 한 채, 누각 하나, 상( )’의 구성이 일치하며 그 건축물들이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고향과 떨어진 곳에서 부모의 부음을 듣는다는 점, 비통하게 슬퍼하는 정서 등 세부적인 사항에도 유사성이 많다.

#### 4. 몽유 장면의 유사성

이제 금화진군이 제션을 거 러 가니 네 맛당히 적덕 잇 집으로 을  
게 고 적악 잇 로 어율이 되게 라

황명녹념기 8쪽.

적덕 잇난 집의 귀 와 복녹을 점지 고 적악 잇난 집의 화을 바다 명명쇼쇼  
물 알게 라. 후 당치 못 물 사양 시더라.

미삼선록 144 145쪽.

위 인용문은 원래 신선이었던 등장인물들이 인간계에 내려올 때의 원리이다. ‘적덕 있는 집에 귀자를, 적악 있는 집에 재앙을 받게’ 한다는 구절이 일치한다. 〈육염기〉에서는 이 구절이 작품의 초반부에서 나타나며 〈육염기〉의 배경이 되는 명나라 초반을 살았던 주요 인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다. 반면 〈취미삼선록〉에서는 이 구절이 본편의 이야기와 연관되지 않고 작품 최후반에 새로 환생해서 다른 삶을 살아갈 곽후의 모험을 시작하는 대목에서 쓰였다. 즉 이 구절 역시 〈취미삼선록〉 이야기의 전반적인 전개와는 큰 관련을 갖지 않는다.

광염이 이 예 난각을 비겨 눈물을 흘니고 슬허 날오 인 이 오히려 기력  
 이만 디 못 도다 머리 두루혀 고국을 라며 처연 마디 아니 더라  
 흘연 선역호로서 운 혼 니러나며 향풍이 쇼쇼 야 점점 나아와 하의 니  
 며 혼 선네 하의 넓고 봉관을 표표히 니러 누하의 러 오 왕모  
 낭낭이 옥데 틱지 밧 와 요디에 대연을 베퍼 세존과 노군을 청 시고 금화  
 진군으로조차 간이 십팔 슈성신과 십이 신장이며 왕모 옥녀 녹인과 나한 도동  
 이 다 거의 도라와 인세 녕육을 알일 혹 문져 오며 후의 와 선회 잇 고로  
 옥데 명 신 직분을 도임티 못 앗더니 이제야 십 삼도진군이 다 디라  
 청 야 경하연을 다내고 각각 임쇼로 흐터디리니 낭낭이 다만 단세 인연이 진  
 티 아냐 겨시나 혼 번 모다 귀경 염 혼디라

녹염기 103 105쪽.

잇 마황후 봉 시던 날 날양공주 의 드러갓더니 옥난간의 비겨 초으  
 더니 의 왕모 치직을 이어 마 후 옥년을 시위 녀 옥경의 조회할 폐운니  
 학을 여 의의히 상천을 향 여 올라가니 잇 옥데계오셔 요지의 회을 베퍼  
 세존과 삼십삼천과 십주삼도진군과 부주희의 체선과 사 용신을 다 부  
 르시고 광무춌차을 인간의 니려갓더 이십팔슈 십이신장을 다 마져 광무를 려  
 실

미삼선록 140 141쪽.

날량을 각가이 부르 네 슈가 비록 진치 아녀시나 금일 회의 웃지 네치  
 아니리오

미삼선록 145쪽.

위 대목에서, <육염기>의 광염과 <취미삼선록>의 날양공주는 난간에 기  
 대어 즐다가 서왕모와 옥황상제가 연 연회에 초대되었다. ‘낭낭이 다만 진  
 세의 인연이 진하지 않았으나 한번 모여서 구경했으면 합니다.’와 ‘네 수  
 명이 비록 다하지 않았으나 오늘 큰 모임에 어찌 참여하지 않겠는가?’는

화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이 거의 같다.

흔 선관이 자황포 넓고 통현관을 시니 업위 야 바로 보디 못 니 이  
태조 고향테러라. 청 표자 이 위국공 셔윈 니 보매 슬프고 반가오를 측냥터  
못 나 말 통 길히 업서 혼갓 랄 이러니 (중략) 왕모의 뒤 웃으며  
가온대로서 흔 선애 뎡용히 거러나오니 옥안 화기 옛날 월염이로 낭미간의  
수 을 여시니 곱고 아리 오미 더욱 새롭더라.

육염기 109 112쪽.

잇 광무 영허전의 후로 더부러 흔 머무러 제신의 도라오를 기다려 옥테기  
췌회하러 실 후와 혼가지로 쾌락을 누리시며 계을 구벼보아 인간 을 이  
라시고 흑탄흑쇼 시며 먼저 도라운 녀와 군신을 다 시위 여 지 시더니

미삼선록 140 141쪽.

이 운여 오 인이 반도 드러 왕 20) 나아가니 각각 좌등의 호니  
이 일염 명염 염 기염 월염이러라 광염이 반갑고 슬프를 덩티 못 되 흔  
말도 여디 못 설워 더니

육염기 115 116쪽.

음후 이날 자하의와 공작선으로 범복을 갖췄고 후기 뵈와 서로 반기신 후  
옥교 위의 나가시니 슈십 선녀 시위 제왕비와 공주 등이며 그중 다섯 옥  
네 각가이 피섯시니 이 동 왕비 무양 관도 녀읍 년양이오

미삼선록 145쪽

위 대목은 광염과 날양공주가 천상계에서 먼저 신선이 된 가족들과 재회  
하는 장면이다. 전반적인 구도는 비슷하지만 〈취미삼선록〉의 광무제와 음  
후가 〈육염기〉의 등장인물보다 더 위계가 높게 표현되어 있다. 〈육염기〉

20) 글자를 인식할 수 없으나 다른 판본과 비교했을 때 ‘모 ’로 추정됨.

의 등장인물이 사후에 한 번 재회를 한 후 각자 맡은 자리로 떠나가는 것에 비해 <취미삼선록>의 광무제 일가는 천상계에서도 단란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표현되었다. 두 작품은 매우 유사한 화소를 공유하면서도 <육염기>보다 <취미삼선록>에서 사후에 친정 가족들과 재회하고 싶다는 소망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난 것이다.

광염이 몽 슬프나 치고 니 목왕이 필연을 나와 몽유 요디연을 기록  
 광염 알 이만 기록 먼 뒤 우리 형제의 절 과 적을 알니었고 처음과  
 나중을 다 거시니이다 목왕이 올라 고 드디여 녹염과 다 리 전후곡  
 절을 손을 주어 후세에 던 나라 그 후 십이 년의 목왕과 광염이 후원니  
 화정의 해 난만 보고 삼월 삭일의 신하 거 려 망향누의 올랐더니 이  
 밤의 부부 병 업시 죽으니라.

녹염기 118 119쪽.

날랑 한 야 반갑고 슬픔을 니끼지 못 야 슈미를 기록 여더니 두부과  
 보고 기히이 역이되 기 부부 비록 인간 영화 부귀 극진 나 양 진 난 날은  
 지여의 고역과 은하의 이별이 잇슬 줄 닷고 탄식 물 마지아니하고 동평왕  
 몽눅요지회 기록흔 거슬 보고 왕도 그날 몽사 혼 이와 갓트물 일으고 기히  
 물 탄하더라.

미삼선록 149 150쪽.

위의 두 대목은 남편과 화락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던 광염과 날양공주가 몽유자가 되어 (친정) 가족들이 신선이 된 것을 보고, 꿈에서 갓 뒤 남편과 함께 그 슈미를 모두 기록했다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일치한다.

<육염기>에서 광염이 자신이 선녀임을 깨닫는 것과 선계에서 먼저 죽은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의외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광염은 반가움과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린 것이다.('광염이 반갑고 슬픔을 참지 못하나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함을 서러워하였다') 반면에 〈취미삼선록〉의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선골이라는 사실을 이미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체험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쥬 간의 왕모 쇼왈 한져와 현후 년간 평을 일우고 이어 도라오니 가히  
공업이 높고 쾌흔 일리로되 혼 데후로서 일닐 이별을 삼쥬가치 녀이더니 이제  
년분이 진 니 가히 섭섭다 라 신원타 라 후 낭쇼왈 첩이 년간의셔 도져을  
괴로워 금일을 날노 바라더니다

미삼선록 146 147쪽.

여음이 왈 그러 도 닥 사람이 신선이 되 진토의 부귀중 람이 신선이  
되 보리 날냥이 쇼왈 네 비록 청고 물 궁 우리 형제 혼 골륙으로  
천가의 장 미 일체오 각진 혼 희 근원이오 한 나무 갓호녀 혼가  
지 선골일 이러트시 모다시니 비슈와 화슈 혼가지 동 산 근원이오 위슈와  
하슈 필경 창 로 도라가 물기리 건년을 벗기 다 각각 전 과 악의 경중으  
로 가려이와 규 를 벗고 운을 타 날 운노의 길이 다름이 업고 천쥬 만세  
후 데후을 피셔 옥경의 조회할 선후피 가 읍슬지라 년간의 처온 김의 울  
홍진부귀을 다 고 진년을 쾌히긔쳐 도라가미 엇지 쾌치 아니 라 하물며 유완  
의 계건도 라 올 갓 니 형과 아 승피 운할 적 골륙형테을 리고 가라

미삼선록 51 52쪽.

위 인용문에서 광후는 자신이 선골인 것을 생전에 이미 알고 사후에 천상계로 돌아갈 것을 날마다 바랐다고 한다. 날양공주 역시 자매들이 모두 선골이기 때문에 신선이 될 것이며 자신들이 황제와 황후를 모시고 옥경에서 다같이 조회를 하게 될 것을 강하게 믿고 있다.

앞선 인용문에서 여읍공주가 날양공주에게 '두부마와 한날 한시에 가려고 할 것'이라고 조롱한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육염기〉의 광염은 〈취미삼선록〉의 날양공주처럼 남편과 화락하다 몽유록을 기록하였는데, 그는 남

편인 목영과 한낱한시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취미삼선록>에서는 날양공주가 두부마와 같은 꿈을 꾸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천상계에서 같이 화락할 수 없는 것을 근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 즉 여읍공주가 조롱하는 내용은 <육염기>에서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지만 <취미삼선록>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매들이 선녀가 되어 시위하고 있는 장면에서, <취미삼선록>에는 <육염기>와 달리 ‘시위하는 수십 선녀들이 제왕비와 공주 등이었다.’는 묘사가 추가되어 있다. 즉 <취미삼선록>의 작가는 제왕비와 공주 등이 늘어서 있는 기존의 세계관을 이미 경험하고 그 위에 자신의 서사를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 5. 나가며

<취미삼선록>은 <옥환기봉>의 연작으로서 <옥환기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나 지엽적인 측면에서 <육염기>와 무시할 수 없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공주들 사이의 가치관 충돌은 <옥환기봉>에서도 이미 있었던 화소이나 <취미삼선록>에서는 ‘태평성대의 양신’과 ‘난세의 충신’ 구도를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주들 사이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육염기>는 부부라는 관계를 매개로 하여 남성 인물이 세운 공적 뒤에 가려진 여성의 역할을 그리고 있기에 여성인물과 남성인물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처리하였다. 반면에 <취미삼선록>은 여러 자매들의 의견 대립과 부마들과의 전쟁 화소를 통해 난폭한 부마의 삶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렸다.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은 천상계를 비롯한 공간 설정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두 작품에서 모두 여성 인물이 객지에서 누각과 초상화 등을

설치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육염기〉에서 광염이 그리워하는 것은 자신의 친정 가족 전부이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오라버니) 반면에 〈취미삼선록〉에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태후와 음후로 각각 그리워하는 사람의 어머니에 해당한다. 즉 그리움의 대상이 어머니 한 사람으로 좁혀진 것이다. 〈육염기〉에서 부귀영화를 흠모하는 언니 그룹은 부귀영화를 흠모하는 시녀들과 함께 영일루에서 거처하고 검소와 절개를 숭상하는 동생 그룹은 검소와 절개를 숭상하는 시녀들과 함께 명월루에서 거처한다.<sup>21)</sup> 〈취미삼선록〉에서도 이와 같은 여성 공간이 등장한다. 취미궁에는 무양, 관도, 여읍공주와 이들이 대동한 시녀 12명이 살고 있다.<sup>22)</sup> 〈육염기〉에서 여성 공간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났으나 남성들과의 결연으로 인해 혼인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에 반해 〈취미삼선록〉에서는 여성 공간에 대한 강한 회구가 나타나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여성 인물들은 저항을 불사한다. 이렇듯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은 비슷한 화소를 공유하면서도 이를 서로 다른 결의 서사로 풀어가고 있다.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은 복수의 여성 인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주제로 삼은 문체적 작품으로서, 비단 두 작품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성의 입장에서 기존 콘텐츠를 재해석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육염기〉는 ‘정난지변’이라는 역사적 콘텐츠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육염기〉 작가는 명나라 초를 이끌어간 영락제, 건문제, 방효유, 경청 등 위인들의 아내에 해당하는 허구적 인물들을 창조하였

21) 이 삼인은 디 검소 기 도히 녀여 간낙을 주 고 인물이 형아 야 류옥을 탐구티 아니코 단실로 구티 아니니 고 소담 매 시네 다 그러코 영일누 삼인은 의복을 화려히 며 단미 만히 드리고 풍뉴와 변화혼 괴를 숭상 니 시네 다 그러흔디라. 〈육염기〉 53~54쪽.

22) 공주 각각 시네 셋씩 별 녀 더리고 잇시니 시년이 각각 이십이 못 고 이 초요월안의 명모호지라 옥용화 절세기이 녀 은 눈과 고은 되 이목의 뵈오니 구녀 좌우로 뵈시 부용화 조료를 쳐 조양의 닷토 꿩 닷 납설 화 만발 녀 향기를 뽐 듯 니 실노 경성경국지 이라 〈 미삼선록〉 110쪽.

으며 이들을 주인공으로 전면화하고 있다. <육염기>는 명나라 초 영웅과 충신들의 결정 뒤에는 여성 인물들의 판단과 도덕심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역사적 사건 뒤의 여성인물의 자리를 만들어 펼쳐냄으로써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공명에 대해 그렸다.

<취미삼선록>은 <옥환기봉>의 연작으로서 소설 <옥환기봉>을 바탕으로 창조된 작품이다. 우선 <옥환기봉>도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다. <옥환기봉>은 중국 후한( )시대 광무제의 한실 부흥과 곽후 폐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승복(2006)에 따르면 작가는 음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신하기 위해 이 책을 엮었다고 한다.<sup>23)</sup> 구선정(2011)에 따르면 소설 <옥환기봉>에서는 후한서의 내용과 달리 가부장의 부재와 가모장의 대두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옥환기봉>의 연작인 <한조삼성기봉>에서는 광무제와 곽후가 성별을 바꾸어 환생한다. 여자로 환생한 광무제는 <옥환기봉>의 곽후가 겪었던 불합리를 몸소 체험한다. <취미삼선록>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곽후 폐출 사건 다시 보기’의 맥락 속에 있는 작품으로서, <한조삼성기봉>에서처럼 광무제와 곽후가 성별을 바꾸어서 환생하는 화소를 수용했다. <취미삼선록>은 자녀 세대 중에서도 곽후의 딸들을 주인공으로 삼았으며, <육염기>에서도 보이는 여성인물의 형상 대비, 가족

23) 종고 이 로 성녀헌비 마다 혼치 아닐 아니라 천고를 역접 나 복과 덕이 겸전 고 손이 번성 여 친척의 니로히 어질며 충의널 이 한시의 두 리 업 미 광열황후 갓 니 전천고 후만세의 가히 쉽지 못혼지라 우인이 전을 지으니 일언 반 도 섬개만흔 허언이 아니오 실적이 아니미 업 지라 후의 지귀지 심과 천손이 계 창성 문 니르도 말고 온양공겸 신 덕과 지효지성 시미 가히 님사마중 으로 더부러 병구 거시로 불 이 몬져 식( )으로 일흠을 어더 계신 오 후궁지널의 거 사 광무황제의 은총이 편벽 고 파도 신 다시 폐입 시 거조를 당 사비 혹 초의 양위 시 덕이 만세의 증안이 되여시나 하 리 업 거시로 후세의 그 덕을 니 업고 그 으로 광무의 총을 어더 흑음여화지 여 탈적 지위라 미 가탄 염 더라. 규장각본 <옥환기봉> 권29, 39~40쪽. 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93~294쪽에서 재인용.

에 대한 그리움, 여성인물들의 공간 등을 통해 원비의 지위 회복 및 무도한 남편에 대한 저항 등의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육염기〉의 경우 〈여와전〉과의 상호텍스트성도 주목할 만하다. 〈여와전〉은 당시 유행하던 소설들 속 여성인물들이 메타적으로 등장하여 상호 평가를 하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투색지연의〉의 투색전을 서사의 발단으로 하면서도 〈투색지연의〉에 깔린 미색의 문제를 지워 버리고 대신 조선 시대에 널리 향유되었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덕성 문제를 글의 중심 소재로 삼았다.<sup>24)</sup> 〈여와전〉 단국대본에는 〈육염기〉의 자염, 기염, 월염이 등장한다. 〈육염기〉에서 절개를 지키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당한 이들은 〈여와전〉에서 영혼의 고결함을 인정받고 해원을 받는다.<sup>25)</sup> 〈여와전〉은 〈투색지연의〉를 다시 쓰고 다른 소설 속의 여성인물들을 소환함으로써 작품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었으며

24) 유해인, 「〈여와전〉의 비평적 성격에 대한 재고-〈투색지연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25~148쪽.

25) 두 녀 다시 니러 왈 신첩 등은 팔 기궁 와 무로 님군이 번역 고 아 로 집이 패망 여 부뵈 통절노 몸을 고 혼낫 님군을 붓드지 못 오니 이 튼 명박지인으로 엇지 감히 성문의 투입 여 서비낭낭의 좌우 춤수 오리잇고 혼녀 계슈복지왈 시첩의 소회 타인과 다른지라 신의 부뵈 박덕무의 여 성을 능히 거 리지 못 고 보워 능히 직회지 못 여 튜신널 로 여곰 십독의 흑화 당 게 고 제 목숨을 앓겨 구차히 변형 여 이단의 몸이 되었 오니 어 넘치로 성문의 춤수 오며 무 면목으로 널위성녀 오리잇가 사라셔 동 등의 참화 밧게 고 독어서 못형부뵈 다 지옥 죄인이 되었니 전 후의 무 밧나미 잇 니잇고 복원 낭낭은 성지 거두샤 비박지인의 분을 평안케 쇼셔 언파의 척연당탄 니 ■ 아미의 수운이 첩첩 고 일 봉안의 징패 어 니 절승흔 거■과 초월흔 품이 빙설의 혼매 니 삼인의 격 일반이 좌등의 비풍이 니리고 근 광 사좌의 도요 니 진군이 낮빛을 곳치고 공경 왈 선악을 분변 여 어지니 고 악 니 물■제 엇지 유복과 혈복을 갈 리오 부인 형태의 혼흔 널과 아 다운 일흠을 모 연지 오 능히 진치 못 엇더니 오 날 다 이 녀와의 명으로 이에 니르매 특별이 위 부인을 니뤄여 이미 천거 니모 이 양치 말고 위장 강반첩여의 무리로 명닐 여 상비 돕고 를 상의 여 쇼성등의 갈구흔 들 헛 게 마르쇼셔.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녀와시성회연록〉 16~17쪽.

이를 통해 다양한 여성 인물의 삶을 재조명했다. 조선시대 소설들의 상호 텍스트성과 관련한 일련의 사례는 소설 작품을 통해 여성인식이 드러나고 전달되는 양상의 일단을 보여 준다.

##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소장 〈육염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황명육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미삼선녹〉.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녀와시성회연녹〉.
-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1~105쪽.  
\_\_\_\_\_, 「〈옥환기봉〉의 인물 연구 : 역사 인물의 소설적 재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1, 1~138쪽.  
\_\_\_\_\_,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고찰-〈도앵행〉과 〈취미삼선록〉에 등장하는 공주들의 시대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65~400쪽.  
\_\_\_\_\_, 「'종남산( ) 취미궁( )'의 체험 양상과 그 의미-『구운몽』과 『취미삼선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 이화어문학회, 2007, 219~239쪽.
- 김강은, 「〈취미삼선록〉의 시공간 구조와 파생작으로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62, 한국고전문학회, 2022, 365~398쪽.
- 남혜경, 「〈육염기〉에 나타난 여성의식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20, 1~104쪽.
-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그림의 기능과 의의, 『어문학』 132, 한국어문학회, 2016, 77~109쪽.  
\_\_\_\_\_,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 60, 한민족어문학회, 2012, 85~124쪽.
- 소인호, 「〈           〉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171~194쪽.  
\_\_\_\_\_,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133~159쪽.  
\_\_\_\_\_, 「〈취미궁성신록〉의 이본적 특성과 축양 양상,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485~513쪽.
- 이민주, 「〈취미삼선록(           )〉 연구-곽후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9,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69~106쪽.
- 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83~322쪽.

- \_\_\_\_\_,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159~191쪽.
-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 -〈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회』, 2006, 351~378쪽.
-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 : 〈현봉쌍의록〉 〈현몽쌍룡기〉 〈몽옥쌍봉연록〉 〈쌍천기봉〉 〈취미삼선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 한국고소설학회 1999, 67~101쪽.
- 한길연,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49~185쪽.
- 유해인, 「〈여와전〉의 비평적 성격에 대한 재고 -〈투색지연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25~148쪽.
- 주수민, 「〈화정선행록〉의 창작 방식 연구 -역사 인물의 소설화 양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우리』 76, 우리문학회, 2022, 91~116쪽.
- 지연숙, 「여와전 연구」,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115~180쪽.
- 최윤희, 「〈육염기〉 연구」,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59~86쪽.



ABSTRACT

Similarity between 〈Yukyeomgi〉 and 〈Chuimisamseonrok〉  
and its meaning

Nam, Hye-kyoung

〈Yukyeomgi〉 and 〈Chuimisamseonrok〉 deliver similar motifs through similar phrases. The two works each feature top-class sisters, including Seodal's six daughters and Han Mu-je's five daughters, and each of them was classified as "excellent vassel of the peaceful reign" and "the royal vassel of the urbulent age". 〈Yukyeomgi〉 deals with "women's honor" by illuminating the lives of female characters, and 〈Chuimisamseonrok〉 takes issue with the "marriage system" through disagreements between female characters. In 〈Yukyeomgi〉, Gwangyeom built Manghyangru tower and hung statues of her family. In 〈Chuimisamseonrok〉, Gwangmuje built Mangunru tower to reminisce his mother when he was a woman in his previous life. Princess Yeo-eup hung a picture of her mother, Huo Chengjun, and missed her. in the dreaming scene at the end of the novel, Gwang-yeom and Nal-yang, who enjoyed wealth lives, were invited to a banquet hosted by Xiwangmu( ) and the Great Jade Emperor. After waking up from their dreams, they recorded the content of dreams. In the above motifs, female characters' attachment to their family members appears in comm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novels that reveal different values of women through the remarks of female characters appeared. Among them, similar phrases seen in <Yukyeomgi> and <Chuimisamseonrok>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re was intertextuality between these works. <Yukyeomgi> and <Chuimisamseonrok> are works that reinterpret existing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Yukyeomgi> is a work that reinterprets Jingnan campaign from a woman's point of view, and <Okhwangibong> series, which is including <Chuimisamseonrok>, is a work that reinterprets Huo Chengjun's

abdication from a woman's point of view. A series of examples show the aspect that the woman readers of the late Joseon Dynasty expressed and delivered women's consciousness through the fiction.

**Key Words**

<Yukyeomgi>, <Chuimisamseonrok>, <Okhwan Gibong>, similarity, intertextuality

논문투고일: 2023.07.25. 심사완료일: 2023.08.10. 게재확정일: 2023.08.11.
--